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② 장충단공원 – 〈법화경〉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불자에게는 불교만이 진실이다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공자나 노자와 불법이 일치한다고 하는 삿된 생각을 분명히 버려야 한다.

–도겐, 〈정법안장〉, '사선비구'



장충단비. 뒤로 동국대학교 방향 출구가 보인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동국대학교를 산책하는 길은 남산의 중턱을 등반하는 과정이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학교 중문을 향한 언덕길이 일출처럼 드러난다. 연등축제를 위해 학교를 찾아온 불자들은 한 번쯤 보았을 풍경이다. 그런데 옆으로 시선을 옮기면 부처님의 세계인 학교로 오르는 언덕과는 다른 장충단공원이라는 공자의 평평한 세계가 펼쳐진다. 장충단은 불교를 박해하고 유교를 숭상한 이조(李朝)를 위해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불교에서 산과 평지에는 여러 함의가 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중심은 수미산이라 하는데 아래로는 욕계에서 위로는 색계, 무색계(무색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서 방위가 없지만 비유적으로 수미산의 정상이라고 한다)에 이르는 큰 산이다. 욕계정에서 무색계로의 선정이 깊어지는 건 수미산의 정상에 이르는 것으로 비유된다. 반대로 〈무량수경〉에 따르면 극락은 산과 언덕이 없고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극락에도 수미산이 있는가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지만, 나는 극락에 태어나면 수행의 계위가 확정되기에 수미산이라는 점진적 수행구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극락이 평지로 구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극락은 사바의 안티테제 아닌가? 사바의 땅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수미산의 정상,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정에 오르더라도 선정의 힘이 다하면 하산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극락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극락에 태어나면 수미산을 오르는 등산은 없다. 그곳에 태어난 것이 바로 사바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유가행파, 즉 자은종의 조사인 현장은 제자 규기의 전언에 따르면 극락의 대중은 보살수행의 열 단계 중 여덟 번째인 불퇴전지라고 했다 한다. 부처님을 이루는데 더 이상 퇴보가 없는, 즉 성불이 확정된 단계만이 극락에 간다고 본 것이다.

현장, 유가 무수한 순간 거쳐 닦아
수행에 기반한 수미산 등정을 선택
가르침은 방편에 불과 진실은 하나

이처럼 현장은 극락을 포기하고 수미산의 중턱, 색계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랐다. 자신의 근기로는 도저히 불퇴전지의 보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법장보살이 세운 한 번에서 열 번 정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섭수하신다는 십념왕생원이나 극락의 대중에 수없이 많은 성문이 있다는 성문무량원을 배제했음을 말한다. 그에게 아미타불의 본원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라 방편이다. 현장에게 염불과 같은 걷기 쉬운 평지의 길로 험난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은 용기를 주기 위한 방편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는 그래서 솔직하게 사바의 중턱에 남고자 했다.

그런데 앞서 규기의 전언이라 했듯이 현장의 저술에는 서역구법의 여행기 외에 저술이 없다. 오직 그는 인도의 경전만을 번역했다. 그런데 어떻게 일종(一宗)의 조사라는 사람이 주장, 즉 종취(宗趣)가 없다니. 나는 현장이 조사인 이유는 당시 중국에 널리 퍼진 염불하면 손가락 튕기는 한 순간 서쪽 10만억 국토를 넘어 드넓은 평원인 극락에 왕생한다는 신앙을 방편으로 버리고, 유가행파의 유가(선정)를 점진적으로 무수한 순간에 거쳐 닦아 수미산을 등반한다는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의 후예들은 극락왕생의 정토종과 말법에 심취한 삼계교 등과 무수한 마찰을 겪으며 진실이 무엇인지 결택하려 서로 개성을 더해갔다. 현장은 방편과는 섞일 수 없는 진실이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그가 굳이 자신만의 독립된 철학을 전개하지 않았어도 일종의 조사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이다.

방편은 버려야 한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방편을 부여잡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방편과 진실의 관계를 설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법화경〉에서 방편이 긍정적 의미인 줄 안다. 사실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선택을 해야만 함이다. 그동안의 가르침은 방편이었고, 진실은 하나임을 현장처럼 선택하라는 것이다. 유명한 화택삼계의 비유에서도 장자가 불타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 자식들을 위해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양 수레, 사슴 수레, 큰 흰 소 수레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수레는 큰 흰 소 수레, 대백우거밖에 없었다. 다른 수레는 처음부터 준비된 적도 없던 것이다. 아무리 자식이 다른 수레를 갖고 싶더라도 사실 가질 수 없다. 이 대백우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화택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죽을 뿐이다. 선택지는 세 개가 아니다. 대백우거냐 화택이냐의 이지선다이다. 나는 화택삼계의 비유를 이렇게 읽는다.

보통 유가행파는 〈법화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유가행파의 계승자인 현장을 〈법화경〉의 사람이라 생각한다. 현장이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대백우거는 점진적 수행에 기반한 수미산의 등정이었고, 극락으로 가는 평평하고 빠른 범부의 길은 양, 사슴의 수레였다. 현장에게 사실 그런 길은 없는 것이다. 그에게 빠르고 평평한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은 화택에 남겠다는 말이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식의 도리를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염불을 부르짖은 중국 정토종의 성자인 선도에게는 이것이 역(逆)이었을 뿐이다.

이같이 불교 안에서도 대백우거가 무엇인지 조사들은 상불경보살이 되어 다른 이에게 진실을 크게 소리치고 다녔다. 부처님의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불교 안에서도 이런데 그 밖의 종교야 말할 것도 없다. 가끔 모든 종교는 사실 같다고 하는 사람도 보이고, 불교와 유·도교를 묶어 기독교와는 다른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런 생각을 접할 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진실은 하나이고 이를 알고 난 이후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불자에게는 불교만이 진실이다.

그런데 사실은 방편에 남는 것이 편한 일이다. 상불경은 다른 사람에게 시끄럽다며 박해받기 때문이다. 상불경은 방편이라는 평지에 남지 않고 언덕으로 바위를 짊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진실이라는 바위를 짊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한가로운 산책자임에도 장충단공원을 배회하지 않고 바로 학교로의 언덕을 오르는 일은 나에게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들어가는 걸음이 된다.

〈동국대 박사〉

'무진장' 창고 만든 삼계교
창고 열어 빈민을 구휼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④ 삼계교 창시자 신행 선사 (2)

수(隋)의 통일(589)을 눈앞에 두고 벌어지는 5호 16국의 피비린내 나는 각축전은 관리들의 타락과 인심의 황폐로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조세에 시달린 민중들은 귀족이나 사찰로 몸을 맡기게 됐고, 삼계교도 폭정에 떠나온 유민(流民)들을 대상으로 교세를 넓혔습니다.

실제, 나라와 사회가 온통 부패와 타락의 몸살을 앓을 5호 16국의 정국에서 내 몸 하나 헌신하여 민중을 위하겠다는 종파는 오로지 '삼계교'뿐이 없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13개의 불교 종파 모두 붓다가 깨친 교설을 인용하며 깨달음과 수행의 논리 속에서 운운했지만, 민중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진심으로 생각한 불교 종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계교를 창시한 신행 선사(540~594)의 시선은 오탁악세를 살아가고 있는 범부들에게 있었습니다. 말법시대의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한 신행 선사는 삼계교를 통해 다양한 불사를 펼칩니다.

우선, 삼계교는 '경제적 관점'으로 대중에게 접근합니다. 당시 민중에게 경제란 무엇일까요. 하루 동안 노동하고 3끼를 먹고, 일을 마치면 집안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시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행 선사는 삼계교의 교의에 따라 '무진(無盡, 다 함이 없는)'이라는 '무진장(無盡藏, 다함이 없는 창고)'을 설치하고 빈민의 구제와 동시에 사산(寺産)을 구축해 사원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무진장의 출처는 〈화엄경〉 〈유마경〉 〈대집〉 등의 대승경전에 나타나있는 무진, 무진장에 있습니다. 이는 위로는 삼보와 아래로는 빈민에 보시해 결함이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삼계교의 중심 실천 교리인 '대승무진장행'의 출처도 이에 기인합니다.

원래 무진장의 의미는, '율전'과 '경전'의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경전의 의미는 앞서 살폈고, 율전에서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디 원시불교 교단에서는, 출가 비구들이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상좌(上座)와 대중부(大衆部)로 갈리면서, 대승불교의 발전으로 금지되었던 경제문제에 보다 원활한 융통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율전' 〈십송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탑을 세우는 법이란 다음과 같다. 급고독거사가 부처님 전에 이르러, '세존께서 유행하실 때면 저는 세존을 뵐 수 없어서 몹시 애가 탑니다. 제가 공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물건이라도 내려주십시오' 하니, 부처님께서는 '거사여, 그대는 이 손톱과 머리카락에 공양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거사는 '제가 그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시는 탑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이를 세존께서 곧 윤허하시니, 이것을 탑을 세우는 법이라고 한다."(기탑법, 起塔法)

이렇게 탑에 올린 공양물은 다함이 없다(塔無盡物)라는 것을 들어, '비야리'의 여러 상인들이 탑에 올린 공양물을 출자해, 그 이익금으로 탑을 공양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십송율〉 조항은 탑지(塔地)·탑법(塔法)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사찰의 재산은 이자를 취해도 좋고, 창고에 여유가 있거나 향유가 남는다면 팔아 무진재(無盡財)에 넣어도 좋다고 부처님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율전인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에서는, "세존께 '만일 승가를 위해서라면 응당히 이윤을 구해야 합니다'라 이르니, 세존은 '신심 있는 거사들로 하여금 불법승을 위한 무진물(物)을 삼보에 보시하여 응당히 회전(回轉)시켜, 그 이익을 구하여 이물(利物)을 얻어 삼보전에 회향하여 공양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송림사 주지〉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